

4대 금융그룹 주주에 2.5조 폰다

外人 잔치 vs 주주가치 제고... 高배당의 '두 얼굴'

작년 배당금 전년 비 8.8% ↑
순이자마진은 일제히 하락세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에 배당 확대
고배당, 은행 건전성 악화 우려도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인 배당잔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혼재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배당금이 2조5000억원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 총액은 2조5209억원으로 전년보다 8.8%가 증가했다. 각 지주사별로 보면 KB금융의 배당금이 75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7530억원), 하나금융(5705억원), 우리금융(437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금융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KB금융(24.8%), 신한금융(23.5%), 우리금융(21.5%) 순이었다.

26.7%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배당성향이 낮아진 우리금융을 제외하더라도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의 배당성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배

〈4대 금융지주 배당금 총액〉

금융지주	2017년	2018년
KB금융	7,667	7,597
신한금융	6,875	7,530
하나금융	4,588	5,705
우리금융	3,366	4,376

단위: 억원

(자료=각 사)

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올해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앞두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금융지주가 이처럼 배당을 확대한 데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요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국민의 투자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가이드라인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이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함에 따라 금융지주가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



M)이 하락해 올해 주요 금융지주의 수익 또한 크게 줄 것으로 보여, 이번 배당이 정부나 외국자본에 등떠밀린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4분기 KB국민은행의 NIM은 1.72%에서 1.70%로 하락한데 이어 신한은행 또한 1.62%에서 1.61%로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NIM 또한 1.53%에서 1.51%로 감소했으며,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의 NIM만이 1.55%에서 1.56%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금융지주의 배당 확대 정책이 외국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18일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

은 하나금융이 70.18%로 가장 높았고 신한금융(67.31%), KB금융(66.19%), 우리금융(27.42%)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정부나 기관투자자가 아닌 업황과 경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높은 단기순이익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 즉 이익잉여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의 고배당 정

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며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은 적정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이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는 판단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 또한 "카드 수수료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플랫폼의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수수료 축소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환경에서 고배당 정책은 은행의 건전성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씨티 NEW 캐시백 카드' 환급·적립 강화

Advertorial Corner

씨티은행 실적 상관없이 혜택 확대

한국씨티은행이 '씨티 NEW 캐시백 카드'의 고객혜택을 확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8일 '씨티 NEW 캐시백 카드'는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일시불 및 유이자 할부금액에 대해 건별 사용금액의 0.7%를 캐시백해 준다고 밝혔다.

전월 총 사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국내 온라인 가맹점 사용액과 해외 사용액(온·오프라인), 휴대폰 자동이체 금액의 7% 특별 적립 혜택이 가능하며 월 최대 2만 5000 캐시백까지 제공된다. 또 연간 사용실적이 600만원 이상이면 연간 보너스 캐시백으로 1만 캐시백이 제공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캐시백=1



원으로 환산해 고객의 결제계좌로 자동 현금 입금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당 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선호하는 실속파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기본 캐시백은 전월실적 조건이나 적립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캐시백 적립이 쉽고, 적립된 캐시백도 현금 자동 환급되도록 해 캐시백 사용 대한 편의성이 많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우리은행 사회초년생 위한 '첫급여 우리통장'

은행수수료 면제·대출 금리우대 등

우리은행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전용 통장인 '첫급여 우리통장'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첫급여 우리통장'은 우대 조건을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은행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수취한 고객은 급여일 다음달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은행 수수료가 면제

되며, 타행 수수료는 5회가 면제된다. 특히, 3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한 고객은 타행 수수료가 한 달간 횡수 제한없이 면제된다.

또한 첫급여 우리통장을 발급받은 후 1년 이내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조건 등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신용대출 금리우대 쿠폰과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에게는 연 0.3%포인트의 금리우대 쿠폰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급여 계좌로 처음 사용한 고객에게는 제주도 소재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제주여행 패키지 쿠폰이 제공된다.

/홍민영 기자

신한銀, 신남방진출 기업 응원... 컨설팅 제공

'글로벌 경영 컨설팅' 대상 국가 확대
투자·입지분석·세무 등 맞춤 서비스

신한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을 아세안(ASEAN) 지역과 인도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한 글로벌 경영 컨설팅은 그동안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60여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을 통



해 아세안 및 인도 지역에 ▲현지법인 또는 공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 ▲거래처 확보 및 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입지 분석, 시장 환경, 노무, 세무 등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팀은 해당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글로벌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지역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의 성공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IBK기업은행 'IBK창공 부산' 1기 혁신 창업기업 모집

IBK기업은행이 'IBK창공 부산' 1기 혁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의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 플랫폼이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총 15개 기업을 최종 선발한다.

육성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이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터 선보연젤파트너스와 연계한 1대1 멘토링,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까지이며, 5월 중 최종 선발 기업을 발표한다.

/나유리 기자

"비대면 투자설계 받으면 경품 혜택"

NH농협은행 '스마트핀 해봄 이벤트'

NH농협은행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자산관리서비스 NH스마트핀의 설계 및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핀 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NH스마트핀(Property&pension Investment Manager)은 농협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비대면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산설계 ▲연금설계 ▲투자설계 ▲올(All)100플랜(은퇴설계 자가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설계'는 연령별 최적 자산배분안을 제시한다. '연금설계'는 고객이 퇴직금만 입력하면 시뮬레이션해 적정 연금수령액과 기간, 절세효과를 한 눈에 보여준다. '투자설계'는 투자성향에 따라 농협은행이 자체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Pro)'와 농협은행의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의 펀드·퇴직연금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올100플랜(은퇴설계 자가진단)'은 은퇴시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춘 필요·준비자금을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에 NH스마트핀의 투자설계 시스템에서 펀드와 퇴직연금 추천 포트폴리오 설계만 받아도 500명을 추첨해 커피상품권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